



뉴스 송신탑

내년에 주목할 만한 축제

문화관광부는 29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등 5개를 2006년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금산인삼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양양송이축제, 강경젓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하동야생차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9개 축제는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문화부는 또 대구약령시축제, 인제빙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한산모시문화제, 남원춘향제, 광주김치대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연천구석기축제, 풍기인삼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정월대보

름들불축제(북제주) 등 13개 축제에 대해 특화축제로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뽑았다.

이밖에 평창효석문화제,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전국음성품바축제 등 25개 축제는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됐다.

예비축제는 1-3년 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함으로써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려는 제도이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의 지역축제 700여 개 중에서 광역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크고 축제의 콘텐츠 등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은 문화부가 위촉한 축제 평가위원

의 현장 참관 평가와 축제 전문가의 설문 평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상품화 평가 등 다면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내년 문화관광축제는 최우수 축제 3억원, 우수 축제 1억5천만원, 유망 축제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예비 축제 제외)받게 되며, 문화부 후원 명칭 사용, 축제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망을 통한 축제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앞으로 경쟁체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한국을 상징하는 10개의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축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축제 자문단 풀 구성을 현행 90명에서 축제 연출, 이벤트, 음식, 축제 안전관리 등 전문가를 보강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120명

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도 대표축제 제도를 도입해 시·도의 자율조정 평가시스템 정착을 통해 지역축제의 관리와 육성을 체계화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⑬홍삼

가까이 있으면서 몰랐던 위장병 치료제
위염억제 효과 탁월해 위암예방에 도움

요즘은 신세대들에게 새마을 운동이나 통행금지제도가 거의 조선시대의 제도였을 정도로 생각되는 것과 같이 위장병이 한국인의 국민병이란 말도 옛말처럼 느껴진다.

그간의 좋은 약물의 개발 등으로 환자 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흔한 병 중의 하나이고 위암은 한국인의 암에 의한 사망원인의 수위(1년에 인구 10만 명에 25명 정도 사망)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위암 발생은 단순한 원인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유발되는 공포의 질환은 아니다.

20대에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해 목숨을 잃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수십 년 간의 지속적인 위염에 기초하여 서

서히 진행됨에 따라 40-60대에서 위암이 발생하여 병원에 오게 된다.

이렇듯 위암 발생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만성적인 자극 등으로 인해 장세포로 변하는 현상인 장형화생(腸形化生)과 같은 심한 만성위염의 기초 위에 발병케 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나 위장장애의 증세가 있는 경우 꼭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많은 수의 위암 환자에게 자세한 질의를 해 보면 증상이나 몸의 변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성위염에 기인한 증세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인에게서 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는 어른 나이에 시작되는 헬리코박터 팔로리 감염, 짜고 자극적인 음식, 혼한 가족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이중 심증적이나 실질적인 연구결과로 헬리코박터 팔로리 감염이 주목해야 할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 균주는 분명히 위암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이 균주를 제거시키기만 하면 위암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홍삼으로 화제를 바꾸어 보자.

고려인삼은 수백년의 역사와 함께 아주 다양한 효능이 규명되어 왔음에도 뚜렷한 약 효능보다는 자양, 활력 증강제, 면역기능 향상 정도로

만 평가하고 복용하면 "몸에 좋다"는 식의 인식을 해왔다.

이는 좀 더 과학적인 약효규명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를 실험한 것에 대한 확실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배경으로 위장학을 전공하는 본인은 우선 헬리코박터 팔로리 감염에 의한 위염 발생시 고려 홍삼의 작용을 찾는 연구를 시행하여 본 결과, 고려 홍삼은 첫째 상당한 수준의 헬리코박터균 억제효능, 둘째 헬리코박터 팔로리균에 의한 위점막세포 손상에 대한 보호효능, 셋째 균주에 의한 염증매개 물질 증가의 차단 등의 효능이 있음을 찾았다.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헬리코박터 팔로리 감염과 연관된 84명의 만성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고려 홍삼 10주간 투여군 42명과 위약(placebo) 투여군 42명으로 구분하여 고려 홍삼의 효능을 규명해 본 바, ▲상당한 수준의 제균 효능 상승효과 ▲제균 후에도 계속 남는 위염 약화 효과 ▲만성 위축성 위염의 재생효능 ▲헬리코박터 팔로리균에 의해 유도된 DNA 변이 감소 효능 등이 뚜렷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임상 효능은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헬리코박터의 제균 치료 후 고려홍삼분 2.7g(매일)을 10주간 투여한 단기간의 복용효능이지만, 더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고려 홍삼을 섭취케 하게 되면 본 연구결과 이상의 더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결과를 시사해 주는 소견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몰랐던 위장병 치료제가 바로 홍삼이었다고 하겠다.

일본인들이 장기간의 녹차를 복용함으로써 상당수준의 건강향상을 이룬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홍삼을 장기간 투여하면 본 저자의 연구결과인 만성 위염의 호전은 물론 위암예방과 다른 건강증진에도 확실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충남도, '금산인삼엑스포' 홍보 총력

충남도는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6 금산 세계인삼엑스포(9월 22-10월15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호텔스파피아와 함께 9일부터 1박2일간 서울지역 40여개 여행사 직원 100여명을 초청, 팸투어를 가질 계획이다.

팸투어 장소는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장 ▲금산 대장금 촬영장 ▲공주 무령왕릉 ▲대전 목마을 등이다.

또 도는 내년부터 수도권 철도역과 지하철역 전광판, KTX 등을 활용해 인삼엑스포를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바로 '홍보'인 만큼 앞으로 지역여행사 및 호텔 등과 공동으로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042-251-2274)

"쌀 대신할 작물을 찾아라"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쌀 대체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농촌살리기특별위원회 주최로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제 1회 쌀 대체작물 개발 자치단체장 합동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전국 27개 자치단체의 장이 모여 활발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성희 농진청 작물과학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쌀 시장 개방으로 논 25만ha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작물의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대체작물은 현재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산물 유통시장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콩과 사료작물, 인삼, 포도, 복분자 등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작물은 콩, 사료작물이지만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인삼,

포도, 복분자 등도 소비 촉진이나 수출 방안 모색, 가공산업 육성, 수급 관리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역별로 특화 작물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김기영 농촌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와 생산자조직,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 생산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4천억원의 쌀 관리비용에다 각 시·군이 재원을 보태 지역 농업발전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동시와 전북 진안군, 정읍시, 김제시 등 4개 자치단체장은 각각 콩과 인삼, 연(꽃), 부추 등 대체작물의 성공 재배 사례를 발표했다.

김기영 위원장은 "쌀 대체작물 개발은 단순히 쌀을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적 관점에서 성장 가능한 품목을 개발·육성해 고소득 작목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서 300년 묵은 도라지 경매

충북 제천의 전국 산삼감정 경매장은 300년 묵은 도라지가 경매에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도라지는 경북 김천에 사는 심마니 이모(41)씨가 김천의 한 야산 바위틈에서 며칠전 채취한 것으로 길이가 무려 152cm에 달하고 무게도 200g이다.

이씨는 이 도라지와 함께 100~200년가량 묵은 것으로 보이는 도라지 5뿌리도 같은 곳에서 채취해 경매를 의뢰했다.

경매장은 이 도라지 6뿌리를 감정 한 결과, 1천5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달 초 중순경 경매할 예정이다.

경매장 관계자는 "100년이상된 도라지도 좀처럼 보기 힘든데 이씨가 채취한 도라지가 300년된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놀랐다"며 "내년에 열리는 첫 경매에서 이 도라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과 30년 쟁투한 전직 법제처장

김홍대 부총장, '한국의 산삼' 출간 산삼(山蔘)을 찾아다니는 이들을 '심마니'라 하고, 그런 그들이 산삼을 발견했을 때는 "심봤다"를 외친다. 여자 심마니는 '심메마니'라고 한다. 이는 산삼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가 '심'이라는 가려진 흔적이다.

한반도 한의학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든가 제중신편(濟衆新編), 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도 인삼(人蔘)을 일러 향언(鄉言, 우리말)으로 '

심'이라 한다고 적고있다.

인삼이란 삼(蔘)의 생김이 사람(人)과 같다 해서 얻은 명칭이다. 중국에서 쓰는 경전을 신비적, 예언적, 점성술적으로 이해하는 소위 참위설(讖緯說)이 기원전 1세기 무렵인 전한(前漢) 말기에 극성을 이루게 된다.

참위설에 입각해 춘추(春秋)를 해설한 문헌인 춘추위운두추(春秋緯運斗樞)라든가 예기(禮記)에 대한 해설서인 예위두위의(禮緯斗威儀) 등지에 인삼(人蔘)이라는 말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산삼은 뭐고 인삼은 또 무엇인가?

경북 봉화 깊은 청량산 산골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와 행정고시를 거쳐 국세청 재무부를 거쳐 법제처의 법제관과 제1,2국장, 법제실장을 역임한 뒤 98년에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홍대 현 중앙대 부총장.

조세나 법제 관련 공무원으로 오래도록 봉직한 그는 지난 30년을 산삼에 미쳐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심과의 쟁투 결과물을 최근 '한국의 산삼(김영사)'이라는 목직환 단행본으로 펴냈다.

산삼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 종류 및 파종, 발아, 성장에 관한 과정과 그 식물학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산삼에 관한 모든 것을 방대하게 엮었다'는 이번 야심작에서 인삼과 산삼을 이렇게 설명한다.

"(고대에는) 재배인삼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 산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지금

은 인삼이라 하면 일반인들 사이에 재배인삼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인삼 처방전에 나타난 인삼 배합 비율이 집필 당시 산삼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간과한 채 지금의 인삼을 기준으로 처방, 조제하고 있어 이는 분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부총장은 나아가 한의학서에 답습되고 있는 산삼에 대한 기록에도 많은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동의보감에서는 인삼에 대해 "줄기가 3개이며 잎은 다섯 개로 양(陽)을 등지고 음(陰)을 향한다. 이를 얻으려면 개오동 나무 밑을 찾아야 한다. 일명 신초(神草)라고 하는데 사람 생김새와 같으며 신(神)이 있다고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삼은 줄기가 5개 혹은 6개, 혹은 7개라고 한다.

이번 책에서 김 부총장은 산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재배삼과 천연삼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환경에 자라고,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를 풍부한 도판 자료로써 중계방송하듯이 설명한다.

나아가 인삼이 강장 효과, 피로 회복, 항암 작용,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효과가 있음을 소개하기도 한다. 548쪽, 3만3천원.



산청 한방휴양지에 대규모 탕제원

경남 산청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규모 공동 탕제원이 들어선다.

7일 산청군에 따르면 대한형상의학회와 금서면 특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1천850평 부지에 180평 규모의 본디올한의원 공동탕제실 설립을 위한 협력을 맺었으며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력에 따라 산청군은 공동탕제실 설치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건립부지 내 기반시설공사 협력, 공동탕제원에서 사용할 유의태 약수 공급 관로매설, 약수저장탱크 설치 지원, 약재 건조보관 저장시설 건립 등을 지원한다.

대한형상의학회는 관내 생산 약초를 우선 매입해 사용하고 공동탕제원에서 발생하는 탕약찌꺼기는 관외 반출을 금지해 지역주민들이 사용토록 했으며 한방약초축제 행사와 의료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대한형상의학회는 전국 65개 한의원이 참가해 400명 이상의 회원들을 가진 국내한의학계의 가장 큰 학술단체이며 본디올한의원 공동탕제실은 의학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된다.

공동탕제원이 들어서면 군내 1천200여 농가 510ha에서 생산된 약초의 전량 판매가 가능해 지역 주민 고용창출과 함께 주민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본디올한의원 공동탕제실 유치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전통 한의학의 본 고장인 산청의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군, '약산 생약초 테마파크' 조성

전남 완도에 '약산 생약초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완도군은 약산면을 중심으로 폭넓게 자생하고 있는 생약초와 이를 먹고 자란 흑염소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과 휴양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약초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511억4천만원이 투입될 이 테마파크는 삼지구엽초, 소경불알, 하수오, 후박, 황칠 등 9종의 생약초 재배단지가 조성된다.

또 연구, 기초 가공시설,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휴양, 관광산업 등 13개 분야에 165종의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공해없는 자연과 생약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생약초 테마파크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제천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충북 제천시가 약초의 고장인 제천을 한방 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약초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올 4월 정부로부터 약초 웰빙 부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0년까지 44억원을 투자, 화산동 약초시장과 약초 재배단지인 수산, 덕산, 백운, 송학면, 신백, 두학동 일대 100여만㎡를 특구 사업지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124억8천여 만원을 들여 왕암동에 약초원(1만 6천500㎡) 등이 들어서는 세계약초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또 2010년 하반기에 100

역원을 들여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이벤트 등이 열리는 한방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엑스포 개최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행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2008년까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변성전분, 특별긴급관세 대상에 추가

내년에 인삼, 메밀 등 44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특별긴급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45개 농림축산물 중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를 제외하고 변성전분을 새로 추가, 모두 44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한도 이하 하락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발동하는 고율의 관세다.

라면이나 빵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져 새로 지정됐고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품목의 운용안을 보면 수삼, 홍삼 등 19개 인삼 품목은 수입물량이 모두 합쳐서 50t을 넘으면 1천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콩기름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의 것 제외)와 메밀은 수입가격이 kg당 198원과 221원을 각각 넘으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中 백두산 삼계탕 포함 2천400만원짜리 식단 화제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제(春節)를 앞두고 중국에서는 벌써 백두산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포함해 한국 돈으로 한 상에 2천400만원이 넘는 제야용 식단이 나와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다.

춘제를 가장 중요한 전통명절로 삼고 있는 중국인들은 제야에 온 가족이 모여 '넌예판(年夜飯)'이라고 부르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고 새해를 설계하는 습관이 있다.

상호가 알려지지 않은 충칭(重慶)시의 한 고급 음식점이 100년근 백두산 인삼삼계탕을 메뉴에 포함시켜 이 '넌예판' 식단으로 한 상에 무려 18만8천위안(한화 약2천410만원)을 받았다고 나선 것이다.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신화망(新華網)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음식점의 주방장은 18만8천

위안의 음식값 가운데 16만위안(약 2천50만원)은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식 호칭) 100년근 인삼삼계탕' 값이라고 설명했다.

백두산 인삼 삼계탕을 내세운 충칭의 음식점과는 달리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수도인 난닝(南寧)시의 한 음식점은 도광(道光) 25년(1825년)에 제조됐다는 '천년공주(千年貢酒)'를 포함한 넌예판 한 상에 9만9천999위안(약 1천280만원)을 받는 상품을 내놓았다.

이 공주가 중국 국가문물국이 지난 1996년 라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의 오래된 술도가 땅 밑에서 발굴돼 작년에 '액체문화재'로 지정된 도광 25년산 백주(白酒)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는 8만8천위안(약 1천127만원)짜리가, 저장(浙江)성 성도 항저우(杭州)에서는 일본의 최고급 장어,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요리, 애저구이 등 40가지의 궁정식 산해진미 요리가 오르는 8만위안(약 1천25만원)짜리 '넌예판' 상품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춘제가 가까워지면 이른바 '넌예판시장'이 형성되며, 음식점들도 다양한 가격대의 넌예판 상품을 내놓아 대목 특수를 노린다. 신화망은 올해 베이징 시내의 전통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한 상에 1천500-2천위안 하는 상품으로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